

# 전주 완산구, 53억원 투입해 도로·인도 정비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노후화된 도로·인도 26개소 재포장 및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통행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를 쾌적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이달부터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제대로 등 12개 노선의 도로와 온고로 등 15개 노선의 인도 구간에 대한 재포장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산구는 신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절기인 지난 1·2월 중 해당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설계가 완료된 구간부터 신속하게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민원 빈도수가 많은 포트홀 등 도로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순찰 및 부서접수 등을 통해 총 1199여 건(3월 13일 기준)을 접수했다. 구는 접수일 기준 평균 3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단기업체와 계약 후 보수하고, 비교적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도로보수원 9명)을 투입해 신속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구정장은 “봄철을 맞아 노후 도로와 인도를 집중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겠다”며 “앞

으로도 생활밀착형 도로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윤동욱 전주시장과 류병덕 ㈜이에프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체 공유 문화관광(물고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에 협력하고, ㈜이에프지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신승민 기자

#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했다

###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비전, 부안이 가장 앞서 실현한다! 대한민국 선도모델 구축



부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

실제 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가 정책 기조를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장관급)이 직접 참석해 군의 비전 선포에 힘을 실었다.

강 부위원장은 군 기본소득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안만의 정책 구성과 실행 전략에 지속적으로 조언해 온 인물로 이번 방문은 군의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최근 전북 다운훈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며 지방이 먼저 움직이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부안군이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세계 최대 규모인 2.46GW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바람연금(수익공유 모델)’,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및 지역화폐 활성화, 대학생 반값등록금 및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기본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군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득·주거·에너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최소한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는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한다는 방

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비전 선포는 단순히 지역적 선임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로 가는 국가적 실천 모델임을 입증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그동안 부안이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역량을 집중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을 부안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선포식은 기본사회 전략 및 로드맵 발표, 비전 선포 퍼포먼스,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상생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됐으며 부안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전환점이 됐다.

한편, 부안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자동차고등학교, 한국해상풍력(주)와 함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의 안정적 추진과 풍력산업 인재 양성,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군은 인허가 및 행정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풍력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임 기자

# 무주형 기본소득 드디어 풀렸다! 18일부터 시작

### 무주군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 지급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일까지 ‘무주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자동차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5%(21,725명)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만 총 86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주민(56세, 무주읍)은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한데,

때맞춰 기본소득이 나와 한시름 뉘었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형 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월 18일(6.18. 이후 자동 소멸)로,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정환 부군수는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

이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이다.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지난 수개월간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와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무주군은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행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민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주 기자

# 익산시, 농사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뿌리 뽑는다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려 악취를 풍기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등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퇴비 악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퇴·액비만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서 만든 거름을 말한다. 이를 농사에 쓰려면 반드시 충분히 썩히는 과정인 ‘부숙’을 거쳐야 한다.

잘 썩지 않은 퇴비를 뿌리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비가 올 때 오염된 물이 강

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법령에 정해진 기준(퇴비: 부숙 중기 이상, 액비: 부숙 완료)을 어기고 덜 썩은 거름을 뿌리거나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는 악취를 막기 위해 즉시 경운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운이란 논이나 밭의 흙을 갈아엎는 것을 말한다. 거름을 뿌린 뒤 즉시 흙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거름을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마쳐야 하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들이 활동하기 적은 평일을 택해 뿌리는 ‘이웃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훈 국장은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려지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된다”며 “쾌적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봉 기자

# 고흥 여행가는 달 ‘우주철도 999’ 특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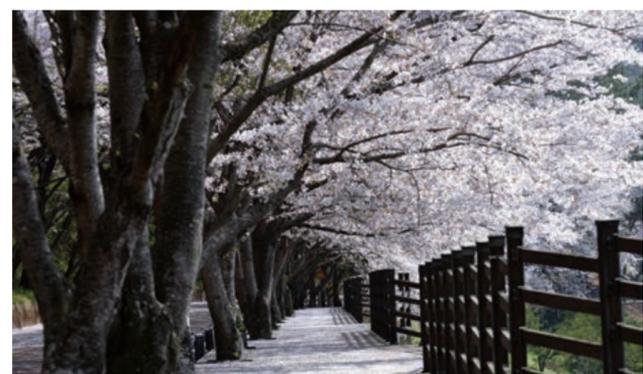
### 코레일 연계 사후 환급 이벤트, 철도요금 100% 환급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철도여행과 지역 소비를 긴밀하게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인 ‘우주철도 999’를 확대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주철도 999(지역사랑 철도여행)’는 코레일 철도 관광상품과 연계해 고흥을 찾는 여행객에게 교통비 환급과 지역 상품권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특히 코레일은 ‘2026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철도 요금을 최대 100%까지 사후 환급해 주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 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주철도 999’는 고흥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다.

여행객이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지역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Chak)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지정 관광지 방문 후 QR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철도 운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흥군은 이번 이벤트가 숙박과 소비를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로

전환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급되는 지역 상품권은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해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관광시설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덕현 기자

# 진안홍삼, 유럽 시장 30만불 수출계약 체결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케이샷)의 유럽 해외법인 Ciao Asia(대표 강광배)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총 30만 달러(약 4억5천만원) 규모의 진안홍삼 브랜드 제품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비즈니스대회에서 진선홍 진안군수와 사업단 관계자들이(㈜케이샷(대표 강광배)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한 진안홍삼 수출 방안 업무 추진 이후,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매장 내 진안홍삼 홍보관 입점(2025년 12월), 진안군과 오스트리아 수입업체와 수출방안 논의(2026년 2월)를 거쳐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진안군과 사업단이 노력한 결과이다. 18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강광배(㈜케이샷/Ciao Asia 대표)와 김정배(사업단장, 진선홍 군수, 한소영 과장이 함께했다.

강광배 대표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케이샷) 유럽 법인 Ciao Asia 대표를 맡고 있고 이탈리아 K-Shop 매장과 최근 오스

트리아 인스부르크 K-Shop 2호점 등 오프라인 유통 관련하여 유럽시장 전반에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진안군내 군수품질인증제품 및 진안홍삼 연구소 기술이전 제품, 홍삼 명인 제품을 향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씩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첫 수출은 2026년 2분기 선적을 목표로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이번 수출 계약은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진안홍삼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판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광배 대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진안홍삼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향후 한국체육대학교 산학 기업 핵심사업인 홍삼 스포츠 음료와 연계해 유럽 시장에 적극 알리고, 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홍 군수는 “진안홍삼 브랜드가 전 유럽으로 알려져 수출량이 늘어나 관내 인·홍삼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서주 기자

#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 7월 17~19일 개최

장수군의 여름 축제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휴양지인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장수쿨벨리페스티벌 추진위원회는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정택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축제 운영 결과를 보고했으며 올해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예산 운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상권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더위를 식혀줄 장수만의 정경 자연과 계곡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임정택 위원장은 “올해로 4회차를 맞게 된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군수는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제현철 연휴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장수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축제가 제현철 연휴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버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김서주 기자